

interview



interview

interview



조준영\*

## 그림책버스 '뚜뚜' 대표 조준영을 만나다

그림책버스 '뚜뚜'. 버스를 개조해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만든 움직이는 그림책문화버스... 이번 도서관문화 7월호에서는 뚜뚜의 대표인 조준영씨를 만나보았다. ■ 편집자 주

**Q** 우선 이렇게 도서관문화 지면을 통해 만나 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림책버스 '뚜뚜'를 만드신 동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또한 버스로 도서관을 만든다는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셨는지 궁금합니다.

**A** 10년 전에 가정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좀 더 많은 어린이들과 만날 수 있고, 늘 지속될 수 있는 도서관을 생각하다가 버스 도서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뚜뚜를 통해서 함께 어린이 삶을 가꾸어가는 엄마들이 많아지고, 그런 엄마모임들이 공원마다 페차버스를 재활용해서 어린이도서관을 만들고 그 도서관을 중심으로 함께 누리는 마을문화를 활성화시켰으면 합니다.

**Q** '뚜뚜'에 마련되어 있는 책들과 각종 자료들은 어떻게 수집하셨는지요? 또한 현재 어느 정도나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 dodojoy@hanmail.net, <http://cafe.daum.net/ddoddobus>

**A** 예전에 가정도서관을 하면서부터 틈틈이 모아온 그림책과 어린이출판사들에서 기증한 그림책이 1,500여권 정도 되구요. 뚜뚜에서 상영하는 빛그림이야기(그림책슬라이드)는 10년 전부터 직접 제작해왔습니다.

**Q**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현재 방문했던 지역에서의 경험담을 간단히 소개해주시고, 혹 인상깊었던 기억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3월부터 전국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그림책한마당’을 매월 진행하고 있구요. 제주를 시작으로 대구, 광주, 순천, 진해, 섬진강, 임진각에서 행사를 진행했으며, 7월에는 부산과 일산, 8월에는 태백지역과 사북폐광촌 등 12월까지 진행됩니다. 지역의 단체나 어머니모임, 도서관 등과 연계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시마당, 참여마당, 공연마당, 특별마당 등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물론 뚜뚜를 신기해하고 좋아하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모습이지만, 그것보다 더 기억에 남고 보람되는 것은,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매주 화요일에는 부천중앙공원에서 공원도서관활동을 하고 있구요. 매월 한 번씩 탈북어린이들을 만나서 그림책과 함께 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Q** ‘뚜뚜’는 이동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동도서관의 역할 중 중요한 것은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뚜뚜의 역할과도 연관지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뚜뚜는 움직이는 그림책문화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책을 싣고 다니는 도서관이 아니라 그림책을 매개로 하는 전시, 공연, 참여활동, 축제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새롭고 창조적인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Q** 보통 마을도서관 같은데 가면, 이야기 해주는 사람 등 자원봉사자 분들이 있는지, 도와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각 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도서관들이나 문화시설기관 등과 협력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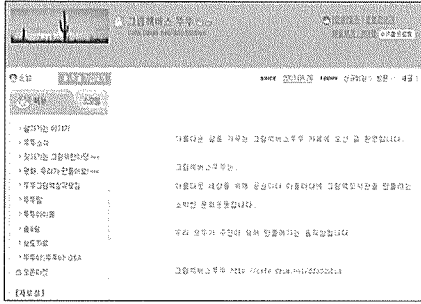
**A** 전국을 순회하는 경우, 지역의 모임이나 단체, 도서관 등에서 자원봉사를 맡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뚜뚜가 가서 행사를 치러주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사람들과 함께 준비하고 진행함으로써 지역의 자발성과 지속성을 이끌어 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처음에 혼자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림책 버스 '뚜뚜'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 마련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그리고 현재 계속 활성화하시려는 단계인 것 같은데 후원단체나 자원봉사 인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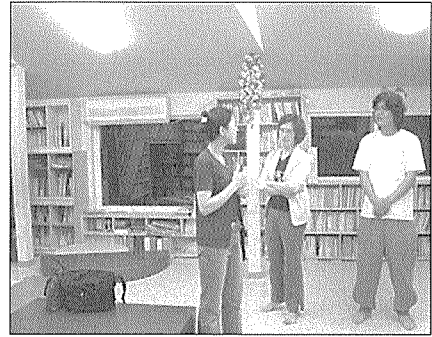
**A** 4년 전 처음 뚜뚜를 만들 때는 일단 혼자서 시작했는데요. 물론 자비로요. 하지만 2003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때는 그림책작가 오치근 선생님이 함께 동참해서 뚜뚜의 그림도 그려주었고, 지금은 사무국장으로 온몸을 바쳐 뚜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뚜뚜맘(어머니모임) 회원들이 매주 화요일마다 부천중앙공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업과 활동을 위해 단체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그림책 버스 '뚜뚜'의 핵심적인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또는 하고 싶으신 일 등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도서관계에 바라는 점, 지역민들에게 바라는 점 등도 같이 듣고 싶습니다.

**A** 뚜뚜는 어린이 삶을 가꾸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공원도서관을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이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공동체문화 만들기, 그림책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 만




▲ <http://cafe.daum.net/ddoddobus>



들기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삶을 가꾸어주고자 합니다. 또한 뚝뚝은 소외된 어린이들을 찾아 가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신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소외된 어린이들을 찾아가 함께 누리고 만들고 주체가 되게 하는 일을 하고자 하지요. 폐차를 활용한 공원도서관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지역의 어머니모임이나 단체, 독서모임 등에서 자발적으로 만들고 운영해 가고, 시립도서관이나 지자체에서 일정부분을 지원하고 도서를 순환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면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폐차로 만든 공원도서관이 한국 도서관의 상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Q**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일정을 간단히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년에 육로로 유럽까지 가실 계획도 있으시다고 하시던데, 그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A** 우리나라 그림책을 알리고, 뚝뚝을 알리고, 폐차를 활용한 공원도서관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내년에 중국과 실크로드, 유럽을 순회하는 대장정을 가질 계획입니다. 뚝뚝에 우리나라 그림책과 그림책포스터, 원화를 싣고 가면서 곳곳에서 그림책한마당을 펼치고, 밤에는 뚝뚝 바깥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한 후 빛그림이야기를 상영하면서 현지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축제마당도 펼칠 예정이구요. 또한 유럽의 여러 도서전에도 참가해서 우리 그림책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2006년 우리나라에서 있을 IFLA대회를 위해 한국과 한국의 도서관, 그림책을 홍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Q** 바쁘신 시간 내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행 : 심효정,  
shjcap@hitel.net]